

# 외국작가 개인전집 새롭게 선보인다

## 현대적 감각의 원역본 지향... 번역문학 수준 높이는 소중한 작업 평가

세계문학사에 명멸했던 수많은 작가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문호들은 각종 세계문학전집의 단골목표를 이룬다. 이들 중에서도 문학사적 의의가 한결 고풍되는 작가들은 종종 개인전집의 형태로 작품들이 총정리되면서 대문호의 면모를 보여준다.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에 걸쳐 왕성했던 전집출판붐에 힘입어 적잖이 선보였던 외국작가들의 개인전집은 비록 일어판 중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을 끌어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80년대 단행본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명맥이 끊긴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외국작가 개인전집의 간행이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의 공백을 메워 주면서 원본에서 번역, 편집체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에 초점을 둬으로써 구태를 벗고 전집출판의 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기존 번역본 '물갈이' 예고하는 새번역

새롭게 선보이기 시작한 전집들로 우선 손꼽을 수 있는 것들은 방대한 작품을 남긴 셰익스피어, 괴테, 헤세의 전집들.

'4대 비극'의 하나인 '맥베드'를 첫권으로 출발한 민음사의 셰익스피어 전집은 고전중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셰익스피어의 전작품을 망라해 일년에 한두권씩 순차적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최종권 교수(연세대 영문과)의 번역으로 완간될 이 전집은 무엇보다도 원전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번역체가 돋보인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원래 공연을 전제로 한 희곡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번역본들은 이같은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공연가능한 운문번역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국내 최초의 운문번역이 될 이번 번역본은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3음보, 4음보의 음보율에 맞춰 번역해낸 것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13~15권 분량으로 완간될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소설사에서 의욕적으로 기획해 펴내고 있는 괴테와 헤세의 전집은 모처럼 독일문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전28권으로 완간될 괴테전집은 그 일차분으로 '프랑스 종군기'(장상용 옮김)와 '로마체류기'(정서용 옮김)를 선보였다. 이 두권은

모두 국내 최초의 원역본으로 '파우스트'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지명도 높은 작품에 가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괴테문학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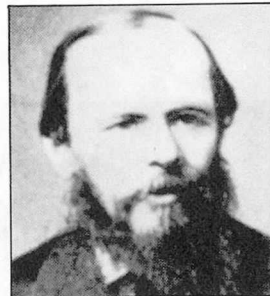
독일문학을 세계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괴테는 '천재적 지성'으로 일컬어질 만큼 문학뿐만 아니라 법학·의학·자연과학·미술 등 전방위에 걸쳐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괴테의 자전적 체험기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프랑스 종군기'와 '로마체류기'도 괴테의 이같은 다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그의 당대에 대한 현실감각과 삶의 전환기적 체험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괴테의 이해를 돕는다. 괴테전집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는 함부르크판을 기본텍스트로 고영석(연세대), 김광규(한양대), 김주연(숙명여대), 안삼환(연세대) 교수 등 30여명의 중진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상세한 해설과 각주를 첨가했다. 96년 완간 예정.

한편 그동안 청소년 취향의 성장소설과 서정시로서만 알려진 헤세의 진면목을 보여줄 헤세전집은 "동서양의 문학적 정서와 그 정신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점"으로서의 헤세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차분으로 선보인 '페터 카멘친트'(김주연 옮김)와 '동화·꿈의 여행'(김서정 옮김)에 이어 '데미안', '황야의 늑대' 등 낯익은 소설들과 산문·일기·편지·회고록·문학론 등 국내 초역되는 작품들을 망라해 전21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김주연 교수를 주축으로 역량을 갖춘 소장학자들이 번역진으로 참가하고 있고 독일 유수의 출판사인 주어캄프 판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방대한 스케일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문학 대가들의 전집도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왕에 러시아문학 전문출판사로 이미지를 굳힌 열린책들이 올해안으로 선보일 예정인 마야코프스키와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이 대표적인 기획.

탄생 100주년 기념출판이기도 한 마야코프스키전집은 그동안 막연히 '혁명시인'으로서만 알려진 그의 문학세계를 구체적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스스로 '혁명의 병정시인'이라 일컬을 만큼 문학을 러시아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결합시키고자 했던 마야코프스키의 작품은 대부분 장편 서사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시집 2권과 희곡



도스토예프스키.



괴테.



셰익스피어.



헤세.



제임스 조이스.



카뮈.

집 1권의 전3권으로 간행될 이 전집의 번역에는 석영중(고대), 이대우(경북대), 김규중(경북대) 교수 등 소장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팜플릿들은 '문학전집'이라는 성격에 맞춰 이번 전집에서는 제외했다.

총20권 분량으로 95년까지 완간될 예정인 도스토예프스키전집은 조주관(연세대), 김진영(연세대), 김희숙(서울대) 교수를 편집위원으로 각 대학 러시아문학 전공교수가 대거 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 '백치', '악령' 등의 걸작들을 비롯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작품까지 망라될 이번 전집은 여러 판본의 대조와 창작 노트를 참조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김희영교수(고려대 불문과)가 지난 87년부터 꾸준히 번역해내고 있는 까뮈전집(책세상)과 김종건 교수(고대 영문과)의 번역으로 전6권으로 지난 88년에 완간된 제임스 조이스전집(범우사)도 주목할 만한 번역작업으로 꼽힌다.

### 학계와의 공동작업 돋보여

제작비 등 적잖은 출혈과 오랜 번역기간을 감수하고 출간되고 있는 이들 전집은 출판계와 학계의 공동노력의 결과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책의해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듯 괴테나 헤세, 까뮈 등의 작품은 이른바 '잘 팔리는 고전'으로 중박출판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그 번역의 질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그동안 횡행했던 졸속번역과 중역, 오역 등을 바로잡는 한편, 몇몇 작품에 집중됨으로써 자칫 왜곡되기 쉬웠던 작가의 전모를 드러내주는 이들 전집은 또한 한글세대에 맞는 현대적 감각의 문체와 편집을 갖추으로써 기존 번역본의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셰익스피어 전집을 기획한 민음사의 이영준 주간은 "모든 고전들은 10년이나 20년 단위로 새로 번역되기 마련"이라면서 시장성에 있어서도 "이들 고전이 대학교재로 꾸준히 읽히고 있는 만큼 기존의 여러 번역본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번역자 선정과 제작비 문제는 여전히 전집출판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열린책들의 경우 "러시아문학 연구의 지반이 아직도 척박하고 전공자들도 초창기 활약했던 노장학자들을 잇는 중간세대없이 곧바로 이즈음의 30, 40대 소장학자들로 이어짐으로써 번역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편집인 홍지웅씨의 고충이다. 또한 러시아어의 특성상 인쇄가 까다롭고 번역료도 다른 언어권에 비해 비싼 점도 러시아문학작품이 문학적 명망에 비해 제대로 된 번역본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는다.

일정 수준의 판매부수가 보장되는 해외 베스트셀러 소설의 경쟁적 번역과 손쉬운 중복출판이 난무하는 와중에서 의욕적으로 기획출판되고 있는 이들 전집의 완간을 의미있게 지켜보아야 할 이유는 이같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이들이 우리나라 번역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작업이라는 점에 있다.

— 정소연 기자